

## 순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위드 코로나’ 전환 선포

오늘부터 생활방역 준수하며 경제활동 최대한 보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일상회복추진단’ 운영

순천시는 25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2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생활방역은 엄격히 지키면서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과 강도 높은 민생 안전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의 행복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 이어 “순천은 10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2일 기준 백신접종률도 1차 78.0%, 2차 68.3%에 달해, 25일이면 위드코로나 대전환점인 전 시민 접종률 70%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나주 열린 순천시민의 날 행

사, 달밤야시장 개장, 2021 NEXPO in 순천, 순천만잡월드 개장 등 많은 행사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했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위대한 시민정신을 버팀목 삼아 위드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30일 K-POP 공연, 11월 5일~8일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11월 12일~13일 푸드&아트 페스티벌 등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일상회복추진단’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방역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증상, 경증 확진자 재택치료지원 협업병원 지정, 재택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자가격리자·호흡기 질환자



허석 순천시장이 22일 순천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청 제공)

를 위한 안심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의 위험상황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은 더욱 철

저히 지켜야 하며 11월까지 전 시민 접종률 85%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고진영, BMW 역전 우승 LPGA 한국인 200승 달성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인 200승 대기록 달성의 주인공이었다. (관련기사 15면)

고진영은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파72·6726야드)에서 열린 'BMW 레디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대회 최저타수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투어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고진영이 우승함으로써 1988년 구옥희 선수가 첫 승을 기록한 후 33년만에 한국인 선수 통산 200승이라는 위업을 이뤄냈다.

LPGA 통산 200승은 여자프로골프의 전설 박세리(1998-2010)가 일구낸 25승을 포함해 ▲박인비(2008-2021) 21승 ▲김세영(2015-2020) 12승 ▲신지애(2008-2013) 11승 ▲고진영(2017-2021) 11승 등 총 48명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금자탑이다.

고진영의 우승으로 한국은 미국(1527승)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LPGA투어 200승을 달성한 국가가 됐다. 3위는 118승의 스웨덴, 4위는 85승의 호주이며 일본은 51승으로 5위에 올라있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기록하며 LPGA 최다 연속 60대타수 신기록 경신에 실패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신기록 부담감에서 벗어난 고진영은 2라운드와 마지막 라운드에서 8언더파로 대회 코스 신기록을 세우며 대역전극을 이뤄냈다. 1라운드 8언더파는 고진영의 생애 최저 타수와 타이 기록이기도 하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지난 11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 이은 LPGA투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이자 세계 1위 넬리 코다(미국·3승)를 넘어서며 올해 첫 4승째를 올린 선수로 기록됐다.

뉴시스

## 영광에 대규모 ‘산림레포츠시설’ 들어선다...서남권 유일

### 영광군, 테마식물원에 공중자전거·짚와이어·네트놀이시설 조성

영광군에 서남권 유일의 대규모 산림레포츠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흥농읍에 들어선 영광 테마식물원과 연계한 산림레포츠 체험 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테마식물원의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한 산림속 에코체인 관광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산림레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해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영광군은 흥농읍 진덕리 25ha 산림 등에 156억원을 들여 유리온실·테마정원·오토캠핑장·산책로를 비롯해 승마 체험객을 위한 ‘외승로’ 등을 갖춘 영광테마식물원을

조성했다.

이곳에 들어설 산림레포츠 체험 놀이시설은 테마식물원을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관광형 정원’으로 발돋움 시키기 위한 계획에서 추진 중이다.

영광군이 특정 공법·자재 제한 심사를 통해 설치를 추진 중인 산림레포츠 시설은 ‘공중자전거’, ‘곡선형 짚와이어’, ‘네트놀이시설’ 등 총 3종으로 73억원이 투입된다.

가장 먼저 총연장 1.2km에 달하는 공중자전거는 공중에 길게 늘어진 외줄에 거치된 자전거를 체험객이 페달을 밟아 얻는 동력을 이용해 이동하는 놀이기구다.

공중에서 하강하며 짜릿한 즐거움을 안겨 줄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 시설인 ‘곡선형

짚와이어’도 280m 규모로 설치한다.

여기에 1000㎡ 규모의 모험 시설로 ‘그물네트’가 지상형과 공중형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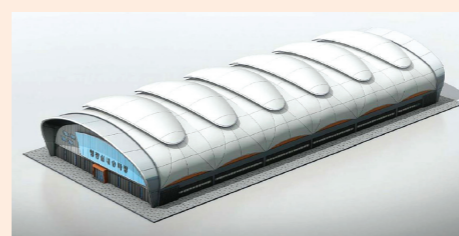
해당 산림레포츠 체험 놀이시설은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2년 내 준공을 목표로 곧바로 착공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산림레포츠 체험 놀이시설이 들어서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승마장과 배수해안도로, 전남 안전체험학습장 등 인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광을 대표하는 관광지 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광군이 총사업비 156억원을 들여 흥농읍 진덕리에 관광형 정원으로 조성 중인 영광테마식물원 조감도. (이미지=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조성 중인 국제규격을 갖춘 사계절 전천후 ‘영광 실내승마장 조감도’. (이미지=영광군 제공)

워킹레일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수시모집 (경력인 우대)

# 신세계 요양원

## 주·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교육지원청 앞)